2017.09.18 제 27차 단과대 운영위원회

출석 현황: 정 부 시반 악반 알반(대리) 나침반 한길반 겨레반 꼼반 (8/13)

정: 상황 말씀 드립니다. 알반 연석회의장 새로 나옴. 똑같은 진수지만 이번엔 대리. 참석단위로는 인정. 의결단위로는 인정 안됨

나침: 연석회의 장으로 누구?

정: 채승원씨.

정: 들어가며, 인권센터 기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대응 할 수 있을지. 오늘은 왜 사회대 학생회에서 자보 안 써왔나…

꼼: 내부에 더 큰 인권 단체는 없나? 그런 쪽에 연결하는 건?

시: 형식을 갖춰서 인권센터를 인권위에 진정 넣는 것 만으로도 큰 타격. 기사 하나만 써도.. 이정도로 망신을 줘야

꼼: 대학신문 관련 일이 너무 화가 남

나침: 인권위 진정해볼 수 있을 듯. 표현의 자유 관해서

시: 거기서 어떤 결과 나왔든 상관없이, 진정을 넣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타격

나침: 진정 취지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진정이라는 게 형사처벌 아니니까. 학생 표현자유 침해한 게 맞다고 결정 나올 가능성 있을 듯. 학생들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너네가 명예훼손 했으니 사과문 써오라고 하는건, 우리 사회 언론자유 입장에서 인정 안될 가능성 높음

한길: 지금 얘기 나온 거 정리해서 학소위 얘기 할 때 정리해서..

나침: 학생회들이 여태까지 인권센터와 적당히 같이 뭐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우선 연대 거부 확정해야 될 것 같다. 인권단체 공대위 이런거 꾸렸을때 그 안에 인권 침해하는 단체가 들어오면 너희랑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학생회도 일단 인권 센터 거부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 열고 선언해서. 학생회 단위들이 연대 거부 선언했다 이렇게 기사 나가는 것도 필요

정: 총학생회에 제안하면 좋겠네요. 학생회 차원의 기자회견 진행

나침: 그리고 제 생각. 지금 이런 권고가 나온 것 번복 필요. 권고가 나온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인권센터가 스스로 잘못 바로잡든가 잘못이었음을 굴복시켜야. 학생회가 연대 거부해도 교수들은 인권센터에 계속 진정 넣을 수 있잖아요.. 짜증나네. 계속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가 굴복하게 하는 것이 이후에도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과정이니까. 인권센터에도 요구사항 확실히. 인권센터는 대학신문 명예훼손 고지 철회하라 이런 식.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이런 요구사항 만들어 전달하고 관철할 수 있게 항의 방문하고, 인권센터 앞에서 1인시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 필요할 듯

정: 요구안 말하는 건 좋을 듯. 사회대 학생회 자보 낼 때도 요구안 덧붙이면 좋겠네요. 총학생회까지 제안해보는 걸로 하고. 총학생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운위가 안 열려서..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어차피 뒤에 기타 안건에 자보 논의 있기때문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없구요. 바로 사회대 학생회 보고로.

역시 사회대 단운위가 짱이에요~~~~ 8시에 개회하기로 한 거 8시반에 개회하지만 후후 안 열리는 것 보다 낫지

과반 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 지난 화요일에 단위 회의 진행. 확간수에서 다뤘던 과반특위 발제문 다시 보면서 특위원들과 피드백 받고 그걸로 순회 토론 계획. 활동계획 팀별로 볼거고, 팀별로 사업 목표랑 기조 세웠는데 이에 대한 피드백 받음. 앞으로 전체회의는 9월 마지막 주에 한번 진행. 단학대회 올릴 안 확정. 단운위에서 최종 확정해야 함. D반 논의 위한 소 위원회 1차 회의 토요일 오전 11시 반쯤에 진행. 일정 확인 업무 배분. D반은 의견이 확실히 나뉘는 상황이고 D반 가능성 여부 차치해도 D반 자체에 대해 의견이 달라서.. 팀 나눠서 의견서를 2차회의까지 만들어오기로 했다. D반 찬성론팀 담당은 전 비반 학생회장이신 전명환 학우, 자치 역량 강화팀은 겨레 짱.

2번 가시면 H 교수 인권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 학부생 교수 대학원생 같이 참여해서 H교수 어떻게 할지 얘기했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보다는, 학부생 가져간 요구안에서 교수님들이 반감 느끼시는 거 같았음. 오히려 교수한테 학생이 규탄 당하는 느낌이라 안좋았고, 교수님이 방어적이기도 했고. 좀 여러모로 H교수 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조적인 권력 관계 극복해야 하고, 교수님들도 평소 생활 반성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3번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규탄서 피드백 받아 수정. 완성본 따로 첨부.

대학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일요일에 회의 갔다옴. 기자회견 진행했는데 그런 일들.. 검토. 이거 관련해서 2차 카드뉴스 나옴. 1차 카드뉴스는 사회대 페이지로 공유. 제주대 총장직선제얘기로 시작하면서 다른 대학 사례 나옴. 그리고 총장 직선제 관련 소책자. 이거 받아서 단운위에서도 보고 과반에서 토론에 사용하면 좋을 듯. 26일에 서울대 총궐기가 총운위에서 일정 확정은 못했는데, 전체 총장 직선제 투쟁 계획안에 있던 내용이라 아마 26일에 할 듯. 이때 일정 파악해주시길.

나침: 이거 총궐기가 아니고 민주화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전 학생회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더라구요

정: 어쨌든 26일에 집회가 있다! 그리고 2.5번에 학내투쟁보고 1,2 탄 카드뉴스 단운위 톡방에 업로드. 사회대 보고에서 질문?

꼼: 21일에 하는 탈탈원정대? 이거

정: 준비중. 포스터 올려드린 거 못봤어요?

꼼: 봤는데..티에프 모집 아니었나? 또 있어요?

정: 또 있어요

나침: 밀양 할매 배경으로 한..

정: 중농 톡방이랑 단운위 톡방.. 올렸죠?

꼼: 아- 네 죄송해요

겨레: H교수 간담회 가셨는데 학생 요구 어떤 거에서 교수 불만이 있었는지?

정: H교수 관련해서 입장 내달라 하는 경우에, 이게 교수님들이 의견 통일해오신것 같지는 않은데, ‘H교수가 이런 인권 폭력 저지르고 반성조차 안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사과할 여지를 안 주지 않았냐. 인권위를 사회대 학생회 자체에서 만든다고 말씀 하셨는데, 학생들이 그거 권위를 가져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석 요구합니다 이런 워딩이 마음에 안 드신 거 같고.. 자기들 규탄하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자기들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악: 도란도란 티타임 같은 거 생각했는데, 발언하는게 되게 거슬리셨나 보다. 사실 학생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음. 게다가 교수님 발언 너무 많아서..

나침: 원래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태도 중시 하시잖아요.

정: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인권 수준이 높다고..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교수님한테 말했을때는 이게 무슨 문제냐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아무튼 질의사항?

꼼: 뜬금인데 교개협 결과지 올라와 있나요? 기층에서 누가 물어봐서

정: 단운위 보고 정도만 올라옴

꼼: 크게 뽑아서 나온 거 같은데 작년에. 이번에도 그럴 계획인지?

정: 사실… 결과랄게..

나침: 교개협 한번 더 하는 거 아님? 임기 내에? 이런 게 해결 안되어서 한번 더 한다고 하는 건?

정: 한번 더 할게요. 더 질의 있으신 분?

알 대리: 반별 순회 토론 같은 경우 소요시간이나 이런 거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

정: 진행되는 시간?

알 대리: 내용 같은 것도

정: 그러면 반운위 소집할 때 도움되니까요?

알 대리: 네.

정: 정기적으로 반운위 진행하는 반이.. 꼼 한길 겨레? 정기 회의 날짜 알려주시면..

알반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공지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악: 시간이랑 기간이랑 말씀하시는 건지?

정: 소요시간이랑 주제

한길: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야한다. 9월말에 회의하기 전까지 해야한다 이런 건가요?

정: 9월 셋째 넷째주. 과반특위 전체 회의는 마지막 주 목요일 쯤.

한길: 여기 못 오시는 분들 갠톡으로라도 얘기해야 될 거 같아서

겨레: 대략 몇 분?

정: 한시간 반 정도 잡아야.

겨레: 이번주 운위 목요일 쯤일 거 같은데 7시에 탈탈 있음. 그럼 순회토론 안건 다루고 반운위 안건 거의 못할 거 같은데

정: 발제문을 사전에 공유하고 읽어오게 하고 논의하면 덜 걸리지 않을까요?

시: 9월중으로 시간 빼기 힘듦. 총회날짜 조사했는데 30분 이상 어느 인원수 모일 날이 하루밖에 없음. 총회 자체 열리는 데는 논의안건 필요 없고 논의안건 처리할 때 정족수 필요함.

정: 각 단위 사정이 다른 거 같아서 제가 여러분 하고 갠톡을 할게요..

겨레: 이번주에 모든 반 다 가능하세요?

부: 이번주 다음주.

겨레: 다음주 화요일로 한번..

부: 점심시간도 괜찮음.

악: 경제학부 과반 토론..

정: D반소 위원회 발제문으로 논의하기로 한 거 좀 더 홍보 해달라?

악: 저번에 순회토론 잘 안모였으니까..

정: A,B,C반은 뻔대랑 연락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없으면 단위보고로.

시: 진로 간담회 잘 마침. 앞으로 세 번 정도 더 열 계획. 갠톡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친구들이 피드백 주고, 요구도 하는데 일을 누가 할래? 하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한번 할 때 예산은 10만원정도 쓰고 있다.. 각 멘토들 선물 같은 거 드리는 비용.

그리고 학회 자체 만족도 조사 했고 이 정도

한길: 결과는 어떤지?

시: 분석이 안 끝났어요

부: 구체적인 맥락 좀

시: 주도적으로 참가 의향 있냐? 별로 없다. 약간 이런 느낌. 나서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 명이 판 깔면 나오겠다는 듯.

정: 시반 반운위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시: 다음주 목요일에 총회랑 겸해서 끝나고 바로. 9월달에 너무 사람모이기 어려움

악: 저희 반 개강 총회하려고 했다가 저번 주 목요일 무산. 지난 월요일 집부 엘티에서 사업 평가 다 하고, 앞으로 집행부 운영 어떻게 할 건가. 피드백 만들어 놓으면 다음 학생회장에게 도움. 오늘 집담회 하다가 늦어서 죄송. 집담회에서 과반자치 얘기하고, 다른 반 사업 뭐가 좋았나 얘기. 이번주 토요일 꼼반과 체육대회. 다음주 월요일 개강총회 한번 더 시도. 그대 순회 토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회장 오늘부터 후보등록 받아서 선거는 27,28일.

한길: 많이 하진 않았는데 겨레랑 운동회 파투. 저희는 그거 나들이로 대체. 집행부 회의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 별다른 거 없고. 저희 개총 겨우겨우 성사. 회계 감사랑 예산안 인준 받고 뻔대 뽑음. 17따로 나들이 간거 부러웠음.

알 대리: 총엠갔고, 채승원이란 친구가 연석 회장. 집부에서 행사 몇개를 추가. 시기가 별로 안좋은 거 같긴 한데.. 생리대 비치 사업. 페이스북 페이지의 휴먼 오브 알 같은 거. 설입이나 낙대 위성지도 뽑아서 맛집 지도 만들자. 이런 얘기.

정: 생리대 비치 사업 같은 거는.. 비치한다는 논의만 한 것인지? 여성주의 적인 토론 있었나?

알 대리: 여성주의적 토론은 없었음. 복지 얘기 나오다가 기층 학우들에게서도 얘기 많이 들음

시: 시반도 생리대 배치 토론 있었는데, 학우들이 전체적으로 편익보다 비용 크다고 판단 바로 앞에 씨유 있으니까 구매 가능, 최근 어떤 생리대가 안전한지 구별 힘들고…

꼼: 개강파티랑 개강총회.. 총회 정말 겨우겨우 1시간 40분 뒤에야 성사. 13학번 분들도 오시고.. 무사히 예산안 인준. 회칙 개정. 언론 노조 지지 자보 붙임. 집행부 회의 오늘 해서, 제가 방학 중에 집행부원들에게 사업 기획서 쓰라고 했는데,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자라고 했는데, 할리갈리 하는거를 토너먼트 라이벌로. 꼼 영화제를 인생 영화제로 하는 건 어떠냐. 꼼 온 박스 해서 안쓰는 물건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하고. 유튜브 채널 만들자는 논의, 사회적 참여 해보자는 논의, 오늘 꼼론장이라는 집담회 같은거 해서 학벌 블라인드 논의. 이번주 토요일은 꼼 악 운동회 나침반 집부장님과 얘기해서 나꼼수 영화제 하기로.

나침반: 나꼼수 영화제니까 컨셉을 정치 언론 유착으로해서 내부자들 하자는 얘기 있었음.

정: 재밌네요.. 이런 취향이시구나

(일동 웃음)

나침: 저희반이 집장이 새로 생겨서 이유정 학우 개총에서 취임. 17뻔대 개총에서 뽑았고, 개총에서 내규 제정 사업하기로 해서 내규 필요성 토론하고 기존 사회대 안에서 내규를 실천해온 방식에 대해 평가해보고 왜 내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나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나 토론해보기로. 그래서 공청회 하기로. 티에프 모집. 자료 준비해서 공청회 때 최대한 많은 학우들과 이야기 해보자! 그리고 연합 학술제를 학회끼리 하기로 했는데 9월에 시간 안 나가지고 연휴 끝나자마자 하기로. 학회 4개고 의무가입제라서. 4개 학회에서 10분씩 발제준비하고, 대주제 아래에 그에 맞춰 자기 학회 주제랑 결합시킬 수 있는 주제로. 대주제 공모 받기로 함.

겨레: 저희도 개총때 세미나 진행이랑 계획서 제출 여러 안건 통과시킨 다음에 학술제 준비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바꾸자 학회장 임기를 지금 방식에서 2학년 1학기부터 맡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바꿔보자 등등의 논의를 포함한 학회 의무 이행 안 했을 때 패널티 설정할 것인가 논점 포함한 공론화 진행하고 있고 이번주 운위에서 각 학회에서 논의된 내용 가지고 이야기 할 듯. 오늘 겨레반 9월 책자 나옴. 한길반이랑 운동회 반 내부적 기획. 다시 한번 참불 여부 조사하니까 애초에 나온 투표율보다 저조. 그래도 인원수가 진행 불가능 수준은 아니라서, 내일 집행부 회의 잡기로 했음.

(알 연석회의 장 입장. )

겨레: 다음주에 지리학과 해외 답사 3박 4일로 있어서 그 시간에 답사 가지 않는 광역생 친구들, 지리학과 친구들 위한 친목 행사 기획. 매번 하는 행사임.

정: 단위 별 질의?

알 대리: 악반이랑 꼼반에서 집담회 했다고 하셔가지고.. 반 학생회 의의 같은 거에 대해 집담회 했다고 하는데 반응 같은 건 어떤가요?

꼼: 저희 같은 경우 작년부터 전 학생회장님 공약으로 시작. 작년에는 학내 이수 학외 이슈 분리해서 이틀에 걸쳐 함. 학내 이슈가 과반 체제 개편.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뒤에 한 거는 20대 개새끼론을 주제로. 이때는 사람 많이 안 옴. 지금은 학내 이슈 뭐해야 할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고 학외 이슈는 집부원들과 회의 한 결과 주제를 구하고 꼼론장 열자. 주제 중심으로 하자고 해서, 어떤 친구가 학벌 블라인드제 하기로 해서.. 오늘 했는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찬반 양립으로 갈리는게 아니라서 좋았음

알 대리: 다른 학우들도 관심 많이 가지나?

꼼: 오는 사람만 오지만, 오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참여

겨레: 발제 해주신 분이 집행부원?

꼼: 일단 지금은 집행부 내에서 발제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와서.. 이번에 페이지에 후기글 올리면서 (집행부원)이 아닌 사람도 발제할 수 있다고 할 계획

악: 1차 혼인제도 2차 학벌주의 했고 3차는 반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사람이 좀 안 오긴 했는데, 시간 안 맞아서였던 거 같고. 집담회 반응은 좋은듯.

정: 다른 질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시반이랑 알반에서 생리대 사업얘기를 하셔가지고. 단순히 여성에게 생리대를 제공한다는 논의의 차원 보다는, 생리대 비치 자체의 의미에 대해 한 번 고민해보면 좋을 듯. 시반에서 생리대 비치 안 해두더라도, 생리대라는 용어가 음지에서만 다뤄지고.. 여성 억압의 현실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게 좋을 듯.

시: 저희도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한 토론과 공감은 충분히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알 대리: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정: 그러면 논의 안건 들어가기 전에 단운위워 인준. 채승원 알반 연석회의장님을 단운위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로 인준. 그래서 지금 9단위된거죠?

논의안건 1번 말고 2번부터. 공공성 위한 학생모임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작년에도 서울대 공공성 위해 활동한 기구 있었고, 사회대 학생회랑 결합했을 때 전 학생회장님이 같이 활동하셨는데. 작년에는 코어 사업 시흥캠 사업 문제 이번에는 성낙인 퇴진이랑 총장 직선제. 의제 만들어 나가고 사업 진행하는 기구.

겨레: 별첨 2번 맞죠?

정: 3번.

겨레: 논의안건 1 아닌가?

정: 2번부터 한다고 했어요

꼼: 이게 원래 없던 조직? 새로운 조직 제안한다는 말이 있어서

정: 원래 있었는데 코어 사업이나 시흥캠 사업 주로 다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간 투쟁 이어오면서 의제 많아져서 새롭게 다시 출범

나침: 여기에 본부점거 본부 특대위 점거위원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 투쟁 하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 생겨남.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나침: 지금 서울대 대학 민주주의 논의가 산적해 있는데,, 그거를 뭔가 중심이 되어서 실천하는게 예전에는 본본 특대위 이런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그렇게 쓰는 거 같음.

정: 지금 총학에서 만든 기구가 부재. 원래 지난 월요일에 총학생회 차원의 실천단 논의를 화요일날 밤에 하기로 했다고 단운위에서 전달. 근데 총운위가 무산이.. 원래는 정족수가 9단위로 성사가 됨. 그러나 자연대 학생회장님께서 안 오시겠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부: 해당 논의되는 안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정: 동의하지 않아서 자기는 책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그 이유가 총장직선제 같은 거 공론화 잘 안되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총장직선제는 사전 총운위에서 계속 통과되어왔던 기조이고. 각 단위에 공론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데 보이콧으로 응수. 시흥캠 강행중단 그 기조가 시흥캠 실시협약 철회 기조와 다르다는 주장을 하심.

나침: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 이런거 아닌가요?

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와서 말씀하신 다음에 실시협약 철회, 강행 중단 같이 집어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기조이고. 그런 이유로 갑자기 안 나오시겠다고 해서

한길: 와가지고 그런 의견 말한 게 아니라 안 나와서 무산으로 의견 표시?

정: 현 정세에서 중심이 되는 기구가 없다는 게 이 기구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 의식. 총운위원 잘 안나와서 미대 학생회장 님은 갠톡 돌리신다고…

한길: 아 와달라고…

정: 질의 있으신가요?

겨레: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단운위원들중에 파견위원 가야하는 건 없나요?

부: 집행부나 반운위에서도 파견 가능

정: 5번 참고가 이상한거 같애…

꼼: 2차 종궐기 어떻게 할지 계획 안잡힘?

정: 날짜만 잡혔고 총운위에서 논의를 해야

나침: 어제 무산된 거 아닌지?

부: 총운위 한번 남았는데..

정: 질의 없으시면 바로 찬반 논의. 의견 말씀하실 분 없나요?

꼼: 그 사회대 기조랑 맞는 거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결합하기에 적합한 듯.

정: 발언 감사드립니다.

나침: 저는 좀 걱정. 민주화를 위한 공동행동까지 시간 없어서. 총학생회에서 홍보 안해서 다들 모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빨리 뭐라도 해야. 일단 다른 단과대들 들어와 있으면 빨리 같이 공동기구 하는게 맞다는 생각. 지금 총학 차원에서 그런 거 하면 고민해봤겠지만 지금 되고 있는게 없는데 학내에서 큰 활동을 하려면 여러 단과대에서 함께 준비해야. 빨리 사회대도 거기 결합하는게 낫다는 생각.

정: 총학 차원에서 입장이 빨리 못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나침: 그것도 문제. 제가 처음 총장 직선제 문제 들었을 때 20월 13일이 다음 이사회고, 이사회 결과지 따르면 다음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 선출제도 정하겠다고 안건 올려놨는데, 일단 시간이 없고. 연휴라서 학우들 학교에서 없고 관심 가지기도 힘든 상황. 총학생회가 입장 8월에 나가 놓고서 홍보 안해서 학생들은 이사회에서 그런 거 하는 지도 모르고.. 또 총장 선출 제도 자체를 얘기를 안하고.. 그걸 알면서도 총학에서도 글 하나만 올리고 뭘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뭐 하지? 이렇게 되니까 빨리 안하는 거 문제. 왜 그러시는지..

정: 기조도 확정된 게 없어서.. 26일에 집회 있는걸로 아시면 됨.. 좀 알려주세요 저희 차원에서 기조 정해서 홍보할 수도 없고..

한길: 총회의 이번주 주중에 안 열리나요?

정: 오늘 내일로 참불 수합 받고 있는데.. 참불 올리면 바로바로 올리는 단위가 없고..

나침: 아무리 임기가 끝나가도.. 자기 단과대 대표하는데 총운위 일상적으로 안 나오는 게 심각. 자기 단운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건 아닌듯. 요즘 그런 풍토가, 너무 심각하게 안하시더라고요 총운위를.

겨레: 반 이상 안오는지?

한길: 그러니까 무산 아닐까

부: 고정적으로 안 오시는 단위 좀 되고.. 연건분들은 바쁘시니까

겨레: 나올 확률이 몇퍼센트?

정: 수의대는 0퍼.

한길: 저 사실.. 전학대회 망해서 욕먹고 출석표 만들었거든요.

나침 전학대회는 출석표 공개. 전학대회도 중요하지만 총운위도 전학대회 다음 상시 의결기구로는 최고의 기구인데.. 근데 그걸 출석 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정: 논의안건 2번하다 총운위 성사되야 한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어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시흥캠퍼스 문제 의식이나 성낙인 퇴진이나 총장 직선제 문제 의식이 공론화 안된 거 같고.. 모임에 결합해 같이 많이 나갔으면.

꼼: 자료집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각 과반에 배포?

정: 각 과반에 배포하고 토론하기도 할 듯? 이번주 수요일에는 인쇄물 나온다고 하셨음.. 그러면 그 논의안건 2번 박수로 인준.

논의 안건 1번으로. 사회대 학생회 차원의 실천 방안 만들자는 거.

당면한 과제는 다음주 총궐기 위해 선전을 끝내는것. 그 이후에는 이사회에 대한 대응방안 그 이후의 행동 방안. 정세같은 경우엔 다 아시듯이 교수 사회에서도 성낙인 퇴진 여론 올라옴. 좀 더 적극적으로 퇴진과 직선제 요구 해야.

부당 징계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도 징계 부당함 인정. 절차상 뿐만 아니라 시흥캠 반대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는 부분이 근거. 투쟁의 정당성을 사법부도 일부 인정. 이런 상황에서도 시흥캠 강행되고 있음. 학생 사회는 강행 중단 요구. 협의회에서 부동산 이득 취하는 거나 재정계획 부실한거나 확인한 상황. 그러므로 여전히 시흥캠 강행 중단하는 요구를 해야하는 것.

그래서 실천단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좀 보시면

꼼: 실천단 활동이랑 공공성 위한 학생모임 활동이랑 다를 바 없는 거 같은데 따로 만드는 이유?

정: 공공모임 활동에서 차원 할때는 중앙에서 선전 나가는거기 때문에 자연대로 나간다던가.. 다른 강의 위주로. 사회대 차원에서 하는 건 사회대 기층이랑 접촉할 수 있음. 공공모임이랑 사회대 실천단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역량 분배를 해야겠죠

나침: 과반 학생회장이 참여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할 듯. 제 생각은 작년에 그 학생총회 기획단 생각하면 그거 할 때 과반 학생회장 다 들어감. 거기다가 공지도 하고 강아지고 과반 학생회장님들이 하고 그런 거 부탁. 기조 토론도 했고. 근데 그렇게 해야 단대에서는 좀 되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공모임 있는지도 모르고 26일이 될 텐데.

정: 제가 구성 부분 까먹음. 구성에 과반 학생회장+ 각반 파견위원

(일동 웃음)

꼼: 파견위원 이것도 필수?

부: 보이콧 안한다면 책임있게 참여한다는 느낌에서..

정: 보이콧 절차상 그거는 문제가 있고.

겨레: 26일 집회는 어느정도 규모 예상?

나침: 예전 총궐기에 300명정도. 사회대가 한 150명.

정: 일단 사람 많이 모으려면 중요성 피력하는게. 암튼 구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반 학생회장+ 과반 파견위원 1인 이상. 학생회장 제외하고 1명.

겨레: 저만 하면 안되나요? 사람 못 구할 것 같다.

정: 과반 파견 위원 1인 이상으로 해야 비반도 오죠.. 일단 구성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1번.

한길:9월 (퇴임).. 너무 부럽다

정: 악반 회장님 마지막 사업으로 공동행동 조직하고 가자!

1번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박수로 인준. 잠깐 어떻게 조직할지 아이디어 내고.

지금까지 한 게 강의실 선전전, 갠톡 돌리기, 과반 포스터 이런 식으로 했었음. 그게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지는 않음

악: 이번 사안이 시흥캠보다도 과반에서 잘 논의되고 있지 않아서..

나침: 그래서 카드뉴스랑 반에서 붙일 수 있는 포스터 3장정도 반방에 붙일 수 있는것으로 만드는게. 시흥켐 징계 총장 직선제 1장씩. 학우들이 반방 왔을 때 처음 읽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제 기억으로 총회 때 하도 학우들이 관심 없는 거 같아서 스티커 설문도 했는데. 그걸 점심시간에 막 돌기도 함. 사라지에 점심 먹는 사람 많으니까.

정: 일단 사회대 학생회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공유바람

시: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 거 같아서.. 학우들한테 뭘 하자는 건가 이게 애매. 앞에 두개는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는데 총장직선제는 안 되어있음. 총장직선제에 점 찍어서 강조

악: 동의. 시흥캠 이야기 너무 많이 되어서.

나침: 시흥캠 같은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총장직선제 될 수 있다는 얘기 했음.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중 하나로 학생 총장직선 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그것을 앞에 세우고 우리의 투쟁에서 새롭게 나가보자

시: 가장 많은 학생들의 공감 얻는 주제일듯. 학생들이 시흥캠 안건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총장 직선제라는 구호를 내걸어야 처음 듣는거네? 총장 직선제 강점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결정해도 괜찮을지?

나침: 단과대 별로 홍보하는거니까

정: 각 과반에서도 어떤 학우들이 어떤 의제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지 보시면 좋읗 듯

논의 3번. 과반방 교체.

(일동 탄식)

정: 많이 슬픈 이야기… 일단 교자팀원께서 만들어주심.

한길: 전 어쩌다 미리 봐 버렸어요

정: 3가지로 제시. 면적이라 인원수 중심으로 짠거.

ABCD지도로 나와있는 거 보시면 되고

ABC반은 조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경제학부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일단은 초안이고 10월에도 논의진행 할거니까 여기서 추가적 고안 필요한 점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세요. 이 세 안중에서 뽑을 게 없을 거 같다거나..

한길: 보고 좀 친구들이랑 얘기해 봄. 2번안 같은 경우 한길반 작은 방 나침 일치 같은 방. 나침 일치 140명 정도인데 경제반이랑 비슷한 거 같아서.. 1, 3안이라고 하면 저희 반이 한음반이랑 같이 쓰는건지?

정: 매해 입학 정원 바뀌기도 하는거고. 소수과반이 두 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한길: 21 22 24명 차이 없는 거 같아서.. 두 반이 어디 갈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불편한 사람 있을 수도. 숫자 작은 거에 비해 너무 큰 변화라고 생각해서.

정: 적시를 못함. 제2반 같은 경우 소수 과반 2개인것.

한길: 악반도 포함? 경제반 정외반 아닌거 같고.

정: 경체학부반 정외 제외

한길: 공간 요구 아예 가능성 없는건지? 강하게 요구할 만한 방법은? 경제반 건설 관해서 저희한테는 아무런 방안 없다고 교개협에서 얘기하셨는데, 매일경제나 뉴스보니까 2018년 내년에 완공 계획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악: 애매하게 말씀하심. 진로간담회서 들었는데 단면도나 층 구조 있었음.

부: 파악 되기로는 시흥캠 건설이랑 비슷하다는 느낌. 학생들한테 진행 잘 안 알려주는 듯. 학생들한테 알려준 것보다 많이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긴 한데..

한길: 경제학부 세 반 모여 회의체 진행한 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공간 얻는 거 얘기는 없는지.. 거기 2018년에 완공이라고 나와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정: 공간 요구는 공간 요구대로. 일단 과방 변경부터 당장 진행할 문제

꼼: 알반 과방 위치가 밤에 셔터 내려가면 분리가 됨. 그거 불편한지 아니면 장점 있는지?

알: 밤새도 탈출가능.

한길: 저희 반도 불끄고 숨어있대요

부: 그건 옛날에도 가능

알: 과방 변경 안이.. 학우들 요구가 있어서 그런건지?

정: 과반 인원 바뀌면서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원래 5년마다 바꿔왔다고 하고.. 경제반이 인원수에 비해 너무 과방 작아서

한길: 알반 별 문제 없나? 그 위치인게?

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큰 수요는 없는듯.

정: 경제반 제외하고 제비뽑기 한다고 했을 때는 알반이 반방 위치 바꾸기 원하시면 그 위치 빼고 제비뽑기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시: 큰 대화방은 안되나요?

정: 작년에 안된다고 행정실에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학생 공간이기는 한데 경비실에서 빌려쓰고 있기도 하고.

한길: 이건 당장 너무 급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하되..

꼼: 궁금한게 언정은 과사 64동. 다른 반은 다 16동? 과사 반방 붙은 게 편한 게 있나?

시: 초안지 바로 낼 수 있고..그것도 고려사항 일 듯

정: 최대한 변동없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나침: 이사하는게 힘들잖아요. 반방 크기가 크게 차이 안나는 경우도 있어서

시: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있는 반이 한길 나침배고는 없죠?

한길: 씨, 비.

정: 여러분 별로 피드백 안주시는거 같음.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나..

악: 아까 나온게 과사무실 위치랑 알반..

정: 지금 2번 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 나온 듯. 1,3번 같은 안으로 가도 최대한 그 위치에 과반방 두는거 로 하고 J위치 들어갈 반만 결정하면 될 듯 경제반은 알아서 합의를.

시: 3번하면 너무 이동이 큼. 현실적으로 문제 큼

정: 전체적으로 합의된 거는 1번 정도? 여기서 1번으로 한다고 정하기보다는 각 단위로 가서 1번으로 잠정적 합의되었다 말씀하시고 의견 받으시길.

꼼 그럼 J방만 결정하면 되는?

나침: 랜덤 추첨을 단학대회에서 하는게..

정: 경제 학부반은 J방 안쓰는 걸로 확실히 합의 했는데, 정외는 합의 가능한지 말씀하시는 게..

나침: 저희는 인원수가 140명

시: 2학년이 조금 작고 1학년 만은 경제반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니.. 빼는게

정: 경제학부랑 정외 제외하고 J방 들어갈 반 정해야. 제비뽑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방이 달라지겠죠.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뒷장에 과반방 변경일시 나와있구요, 새맞이 들어가기 전에 바꾸는게 좋아 보이고 11월 말이나 이럴 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논의 안건 3은 1안으로 잠정적 결정.

논의안건 4번이구요. 단학대회 10월 12일이라서 대의원들 구해주셔야 하고 저희가 회칙 개정을 하려고 해서, 사실 좀.. 저희 입장에선 그렇긴 한데 회칙 개정 보시면 좋을 거 같고. 현재 사회대 학생회칙에서는 정,부학생 회장 임기기 이렇게 정해져 있음 사회대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 끝나면 이의제기 끝나서 바로 임기 시작. 인수인계 기간 없기도 하고.

부: 전입 입장에서는 사업 중간에 끝나고.. 후임은 한숨 돌릴 수도 없이 시작. 저희는 작년에 당선되자 마자 동맹휴업 준비

나침 이 안 발의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죠? 저는 필요하다 생각. 역대 회짱 말 들어보면 당선되고 회실 갔더니 자기 혼자 회실에 있었다..당선자 신분이 아니면 집부 모집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냥 다음날.. 당선되고 술먹고 아침에 일어나 학생회실 갔는데 이게 뭐지??!!

부: 제안드리는게 상술된 총학생회칙 참고해서, 40조 3항 잍줄친 거. 정부회장 임기는 선거 성사시 내학년도 12월 1 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 한다. 원래 사회대 학생회칙에 정규 선거기간 내에 성사된게 흔한 역사가 아니고, 연석회의 되고 3월선거 했는데, 연석회의 대비해서 전 학생회장이 2개월정도 더 했는데, 이거를 넣을까 말까. 안 넣으면 11월까지만 하고 끝낼건지..

선거무산시 420일 채우는거고, 선거 성사되면 11월 30일까지. 이대로 발제가 되면 정부학생회장 임기는 선거성사시 내학년도~ 이렇게 바뀜

악: 질문. 선거 무산되면 중간에 하지 않나?

부: 3,4월까지는 연석회의 체제.

악: 그 때 새로 뽑힌 사람의 임기

부: 연석회의 체제로 굴러가죠.

정: 11월 30일까지.

부: 총학상회칙에는 통상적으로 큰 문제 없는데 염려 되면 조항 추가 가능. 뭐 3월에 취임한 사람도 11월30일 까지 임기 이런식.

악: 11월 30일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12월 1일부터가.. 문제 아니냐

나침 그거 해석할 때 학생회장이 임기중에 생긴 걸로 해석. 연석회의라고 했을때 연석회의 하다 3월에 당선되면 비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식으로. 정식으로 된게 아니라는 식으로. 정식은 12월 1일부터라고 기준을 잡고, 필요에 따라 보궐선거 소집하는 식으로 되어있음. 회칙상 보궐선거 안해도 되는 거임. 그렇게 두는 걸로 알고 있음

부 그래서 그 총학생회칙에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던 회칙들에 따른 그런 예비 조항이 없어요.

겨레: 이해 안되는게420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선거 무산되고 연석회의로 가면 학생회장 임기가 만료 안된거라는 건가?

부: 그렇죠. 420일까지 임기 유지 가능. 420일 넘어가면 해방이 되는것. 굳이 420일 되지 않을 때까지는 퇴임 안해도

정: 선거가 무산되면 420일까지 임기

한길: 개시되지 않았다는 게 무산 된 것도 개시 안 된걸로 보는 것?

부: 표현이 불분명한 점 있어서.. 원래 사회대 학생회칙 복사해온건데

회 그러니까 선거 무산도 선거 개시 안 된 걸로 생각

나침 선거를 소집 안한 걸 의미하는 거 같다는 생각. 선거를 소집했는데 무산되었는데 임기 이어진다는 게 이해 안됨. 선거가 무산 된거면 임기가 끝나는게 맞음.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서 무산 시켰을 수도 있는거임. 그냥 임기가 이어지는 건 말이 안됨.

정: 그러면 11월에 선거해야한다는 회칙이랑 어긋남

나침: 해야 된다는 어디있어요?

부: 뒤쪽에 있어요. 10월이나 11월중에 소집해야한다.

나침: 저는 무산된 이후에 임기 지속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음

정: 사후 처리를 하라는 거..

나침: 선거랑 임기를 회칙이 구분하고 있고… 10월 11월에 선거 연다는 게 개정된 회칙이라면 추가할 때 앞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 같고. 저는 애초에 선거 무산되었는데 임기 지속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생각.

부: 이대로 가도 괜찮을 듯.

나침: 예를 들어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었는데 정학생회장이 계속한다는 경우 생각하면..

정: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는 그분들은 11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사회대는 11월 30일까지로 안 정해져 있음. 그냥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문구 짜는게..

나침: 저는 이거랑 11월 30일 선거 소집해야 한다는 건 배치 되는 거 같고 그냥 ‘단’ 뒤에를 지우는게 나을 거 같고. 이 조항은 ‘단’ 뒤에를 지우는게 맞을 듯

겨레: 질문. 선거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건 후보가 안 나와서?

부: 그렇죠.

겨레: 개시되지 않는다는 게 상상이 안됨

정: 그건 선거 안되는 건데?

나침: 무산이죠.

부: 선거 개시 안된다는 건 본인이 열지 않을때.

나침: 선거가 개시 안된다는 건 선거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

겨레: 그게 어떤 경우인지?

정: 그럴리가 없는데?

나침: 10월 1일에 선거 소집해서, 10월 1일 임기 시작해서 최대로 해서 420일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면.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월이나 11월 중 선거해야 한하면 임기 시작일 가능성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잡는 거. 선거 소집 할 때까지 42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같고…. 그래서 420일 넣은 거 같고.

부: 이게 다 확인해 봤는데 총학생회 측과 타 단과대는 11월이 의무로 잡혀있고

나침: 그건 기본적으로 연임 가능성 보장하는 규정이죠.

한길: 아 10월에 한 게?

나침: 저는 여기 선거 개시라는 건 선거 소집이라는 문구가 맞다고 생각

정: ‘단’ 뒤를 지우고 10월, 11월에 선거한다는 조항도 수정을 해서 같이 올리는게..

그래서 그냥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안건 상정 안해도 되고 다음주에 해도 되니까 임기는 매 학년 선거 성사시. 10월 11월 이 부분도 같이 고치고.

나침: 총학생회 규정과 전체적으로 맞추면

정: 다음주에 다시 안건 상정 논의하도록 하고, 사전에 반운위있는 분들은 취지 이런 거 설명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다음주에 수정안, 기조 논의. 넘어가구요. 기타 논의

광주 순례 기획단. 아직 사회대 학생회에서15만원 입금을 안했는데, 그거 하면 잔금이 14만원이나 그 정도 남을 상황. 저번에 논의된건 후원을 하는 것이나 후원 단위에 환급하는거랑 어떤 단체에 후원하는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게 N분의 일 한다는거? 저는 후원단위에 다시 환급하는건 선례 남기는거에 있어되게 좋지 않다는 생각. 왜냐면 저희가 얼마 남기는지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해서 환급을 요구한다는게 되어버리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들고, 후원 받은 단위에서 사용 자율성을 지니는 것. 사실 광주순례할때 늘 싼 밥먹고 돌아다녔는데.. 밥 좋은 거 먹는다던가 자료집 두껍게 한다던가 하는거고, 이걸 다시 후원 단위에 후원하라는게 부적절한 듯.

악: 상황 설명 좀

정: 그래서 5월에 광주 순례 기획단 만들어서.. 사회대 학생회랑 사범대 학생회랑 인천에 막 잘하는 모임이랑 기획했었고,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15만원 드리자 한거죠. 각 과반에서 지원해주신 분도 있고. 돈이 남아서..

악: 환급한다고 하면 후원 금액에 비례해서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정: 기획단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기도 해서… N분의 1로 참여자들에게 환급하는 건, 참여자들이 같은 곳에 쓰자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고.

알: 후원금이잖아요 …

정: 후원금이 아니라 참가비도 있고 후원금도 있는데 거기서 14만원이 남은거죠

꼼: 지금까지 후원 많이 했는데 왜 광주 순례 기획단만 돈이 남는지??

정: 보통 돈이 안 남고… 기획단에서 돈은 잘못 쓴 것일 수도 있죠.

나침: 제가 여성주의 도서전 할 때 후원 요청할때 남은 돈 있으면 어디에 후원할 예정입니다 말하는 경우가 음. 여성노동 사업장에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많았는데, 그게 없어져서 제기하는게 아니겠냐.. 그래서 제 생각엔 처음엔 후원 요청 할 때 그거 신경 썼다면 좋았겠지만 처음에 기획단이 그거 생각 못해서 그런 경우 많은 듯.

악: 그럼 그때 겨레짱이 주장한 건 환급 받자?

겨레: 물어보지 않고 환급해주던가, 물어서 어디어디 후원하겠다. 그런건 동의하지만 아무런 동의도 없이 취지 비슷한 다른 투쟁 사업장에 후원금 다시 후원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맞지 않다?

나침: 어디 후원?

정: 징계 소송 나갔던.. 거기 또는 다른 투쟁 사업장. 징계 소송비로 나가는게 커서. 후원 단위면 여기서 동의해주면 되는데

꼼: 아까 나침짱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리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N분의 일 하기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디에 후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후원단체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

알: 양해를 구하는 것이므로

악: 광주순례 기획단 취지랑 그런 투쟁 사업하는 거랑 맥락이 아주 똑같지는 않은 듯. 광주 순례 기획단에서 돈이 남으니까 아껴써서 돌려줄 수 있으면 잘 한거 아닌지? 광주 순례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런 활동 하려고 합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합니다 라는 거면.. 괜찮지 않나요

꼼: 내년에도 이런 거 할 계획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 그럴 경우엔 통장에 돈 남아있다가 내년에 쓸지 안쓸지 모르는 돈으로 남아있을 거 같고..

부: 내년에 사회대 학생회가 다른 단위랑 함께 할수도 있고, 똑같이 가도 이월하는 건 아닌 듯.

정 사실 저는 계속 환급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서..

나침: 후원사업했는데 환급해주는 건 좀 취지상..

정: 다른 단위들은 100개 단체 후원 받고 하는데 이러면 굉장히 번거롭

나침: 그 단위에서 우리는 이 만큼의 돈을 이만큼 쓸 계획이다 해서 후원받음..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돌려줘야만 하는 건 아님. 그 취지를 살린다면 다른데에 쓰여도 괜찮지 않을까. 피드백 남기면 처음에 ‘돈이남을경우 광주 항쟁 부합하는 투쟁에 후원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도록 피드백 남기고, 그렇게 하면 선례에도 맞고 하지 않을까..

한길: 보고 되고 합의 된다는 게 중요한 듯. 문제 제기하신 분도 그 사업 계획에 없었던 건데 하는 거니까 얘기는 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새로운 방향이니까 절차 거치는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이정도의 간단한 얘기. 환급받는 건 저도 정말 아닌 것 같고.

정: 괜찮다면 후원하는 거 어디에 하는지 알리는게.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럼 2번으로. 좀 더 넣고 싶다는 내용있으면 제가 넣을게요.

나침: 저는 얘기했듯이 요구한 있으면 좋겠다. 초안으로 아까 제기한 게. 문제 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맞는지? 대학신문 한신갑 인권부스. .

한길: 지금까지 다 합치면 교수님들 갑질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왔던 전례들?

나침: 세 개 전부다 교수 학생의 그거가 핵심.. 그거 요구안 넣는게 좋을 듯. 교수에 의한 학생의 인권 침해 침묵하고 이런 문제를 학생 탓으로 돌린거 인권센터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두번재는 이거를 철회하라 이게 들어가야 할 듯. 대학신문에 사과 요청한거나 학소위 인권부스 결정 철회하라.

정: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요구 하나 넣으면 좋을 듯.

나침: 이건 논의해봐야 하는 것. 인권센터가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대학본부 산하기관이고 본부에서 임용하는 교수들이랑 직원들 이렇게 해서 학생 참여 없음. 그런 게 문제. 그런 거 관련 문제 넣을지. 그건 토론을 해봐야. 인권센터 같은 경우면 계속 그럴 듯. 그래서 요구안을 걸기가 되게 애매하지 않나.

부: 사회대가 단독으로 걸 수 있는 요구안이라기 보다 함께 하는 단위가 있어서 ..

나침: 단과대 단위에서 실천할 수 없는 요구안 거는거 부담스럽고

부: 관련된 내용을 제언식으로 해서 구체적 요구안 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을 거 같고

정: 인권센터 한계로 가는게 좋을 듯. 요구안 두가지로 써서 올리겠습니다.

겨레: 질문. 인권센터 홈페이지 가면 성명서 읽을 수 있나요? 사실 관계가 좀 부풀려져 있다고 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데.. 인권센터가 어떤 구체적 근거 검토해서 그랬는지는 없나..

나침: 진짜 대학본부 기관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야 함.

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회 차원에서 인권 사업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함.. 인권센터 얘기하면서 여기가 전문가 집단이라서 기대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 학생회 자치적 측면 살려서 인권 사안을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제 27차 단운위 폐회.